
2020년 제29호 방송심의보고서

2020. 7. 10. ~ 7. 16.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7. 10.	시청률	0.041

【총 평】

‘단박톡’은 남북 위기를 초래한 북한의 최근 도발 배경과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행동 보류 배경에 대해 점검해 보았고, ‘북마크TV’는 “코로나19 경제난 타개를 위해 북한이 강조한 식재료?”를 다루었다.

‘단박톡’에서는 남북관계 위기를 자초한 북한의 대남 도발과 남북 간 상황을 급전환 시킨 북한 대남군사행동 보류 발표가 주는 의미를 재해석해줌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한반도의 냉정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北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행동 전격 보류! 숨고르기 배경은?”을 통해 북한의 4대 군사행동 보류 의미나 도발 이유, 용어에서 나타나는 북한 메시지 등을 미시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전략전술이 갖는 의도와 정보를 명쾌하게 제공하였다.

【구성 및 내용】

최근 북한의 "남북한 연락사무소" 폭파이후 또 다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의 속내와 남북한 관계의 새로운 시각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전하는 시간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행동 전격 보류에 관해 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DMZ 내 군사배치 위협, 확성기 설치 및 철거, 군사행동 보류가 의미하는 속내를 상세히 다루고 향후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강조했다.

북한이 군사행동을 '보류'한다는 것은 사실상 '중단'에 가까운 속내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 군사적 재배치와 무장화 하기 위한 4가지 군사행동을 시도하려던 속내와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북한과의 외교, 군사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정부가 대응하는 것에 대한 소식을 전하였다. 정부는 앞으로의 남북관계도 변함없이 평화를 추구하며, 적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DMZ 군사배치 엄포를 다룬 대목이 인상적이었는데, 확성기 설치의 의미에 대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라는 한 문장으로 많은 것을 일러주었다.

북한의 대남도발 속내가 경제 침체와 내부적 결속을 위한 한 방편이라 명쾌하게 정리해주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과의 모든 물자지원 및 교류 조차도 끊어진 상태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 거듭되고 있어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이 도발의 시그널을 이어지고 있다.

북마크TV는 북한에서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홍보하고 있는 매운 고추와 검은 마늘에 대해 소개를 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효능이 있는지 별로 신빙성은 없었지만 나름대로 그 효능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흥미롭긴 했다. 실제 효능보다는 고추를 활용한 북한의 여름 음식이나 지붕마다 고추를 말리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프로그램	최일구의 정말		
방송일자	2020. 7. 10	시청률	0.117

【총 평】

한반도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변적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찾아왔던 평화의 봄이 최근 경색국면을 보이면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졌다. 이런 남북관계의 엄중한 시점에서 <최일구의 정말>에서는 현 상황을 진단하고 그 해법으로 '한반도 평화, 새로운 봄을 맞으려면'을 방송했다.

특히, 정확한 상황진단을 바탕으로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미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유의미한 관점을 제시했고 과거와 다른 차별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구성 및 내용】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찾아왔던 한반도의 평화의 바람이 최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로 까지 이어지며 긴장상태에 돌입하였다.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한반도의 정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첫 번째 주제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남북은 지금'에서는 최근의 남북 관련 상황과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행동 보류 지시의 배경, 북한의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분리 의도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 주제인 '남북관계, 운신의 폭을 넓히려면'에서는 개성공단 재개의 해법과 함께 경색된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 모색, 그리고 현재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을 짚어보았다. 세 번째 주제인 '남북미 평화협상 전망'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 전망부터 북한 내부에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립, 올해 안 북미정상회담 개최가능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 정부도 다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미대화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타이밍이 잘 맞은 기획이었다. 특히 남북관계의 틀을 바꾸려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며 그 해법으로 인도적 사업과 보건의료 협력사업 등 창의적 솔루션을 제시한 점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개성공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남북 간의 보건의료부문 협력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병원건립과 접경지역 공동방역을 언급했는데 유용한 관점이 담겨 있었다. 이와 함께 북미 대화에 있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를 정리하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 내 변화를 언급하면서 화상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전망했는데 앞으로의 행로를 점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은 공식적으로는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며 실제로도 대량 전파는 없는 듯이 보이는데, 휴민트를 통해 확인한 바도 그렇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 소리		
방송일자	2020. 7. 11.	시청률	0.171

【총 평】

<신비의 여름, 경북 청송>편은 경북 청송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불거리, 들을거리, 먹을 거리를 제대로 살려 '푸른 소나무의 고장' 청송 브랜드를 부각시킨 점이 눈길을 끌었다. 청송의 특산품인 꽃돌, 청송사과, 전통옹기, 고택과 된장 등을 소재로 한 옴니버스 구성이 돋보였고 하얀 바위 사이로 흐르는 청아한 물소리, 점토흙 다지는 소리, 도마소리, 된장찌개 끓는 소리 등 사운드가 제대로 살아나 몰입감을 높였다. 또, 원석을 채취해 꽃돌을 만들어내는 과정, 전통방식으로 옹기를 만드는 과정, 맛깔스런 된장찌개를 끓여내는 과정이 디테일하게 그려져 다큐의 기획의도를 살린 부분도 흡인력을 이끌었다.

【구성 및 내용】

'신비의 여름, 경북 청송'이라는 부제로 경북 청송을 찾아 청송의 꽃돌, 청송의 흙, 청송의 시간을 소재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에 쉼의 의미를 일깨우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청송의 꽃돌에서는 꽃돌 원석을 절단하고 연마하여 꽃 형상을 드러내는 작업을, 청송의 흙에서는 오색점토에서부터 흙반죽, 옹기형상 만들기, 잿물 바르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었다. 청송의 시간에서는 고택에서의 다도와 함께 오래 묵힌 된장으로 만든 된장국 식사를 보여주었다. 계절을 잊은 듯 설경을 연상시키는 하얀 바위들, 그 사이로 계곡물이 흐르는 경북 청송의 백석탄 포트홀은 비경을 품고 있다. 청송이 자아내는 신비의 여름을 소개했다.

청송의 꽃돌을 소개했는데 꽃돌을 절단하면 꽃 형상이 드러난다. 보통 해바라기, 국화, 그리고 모란꽃 형상이 나오기도 한다. 용암이 식어가며 만들어진 꽃의 형상, 돌이 품고 있는 꽃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꽃돌 연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절단한 꽃돌은 연마와 광택작업으로 인해 더욱 선명한 꽃의 형상이 나타난다. 장인의 손끝에서 생명을 얻은 꽃돌은 작품으로 재탄생한다. 특히, 꽃돌의 연마작업과 옹기반죽을 치대는 소리는 일반 공장의 절단기·연마기와 유사한 소리지만 꽃돌 및 옹기제작 영상을 함께 보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 특별한 소리가 된다.

또, 청송의 흙을 소개했는데 이무남 옹기장은 59년도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 청송의 흙으로 옹기를 탄생시킨다. 특히 청송의 오색점토는 옹기를 만들기에 적합하다. 흙반죽을 두드려 찰기를 더하고 물레를 돌려 벽체 안팎을 두드려주면 옹기는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잿물을 바르고 말린 다음 구워진다.

청송의 시간을 통해 청송의 오래된 고택에 대해 얘기했다. 100년이 넘는 고택의 안주인은 태어날 당시에도 이미 450여년이 된 집에서 태어나 이렇게 오래된 시간을 간직한 곳이 좋다고 한다. 한편 자연이 키우고 시간이 맛을 들인 오래 묵힌 청송의 된장, 텃밭의 채소들로 된장국이 완성되었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0. 7. 11.	시청률	0.006

【총 평】

<우리 동네 개선문> 제31회는 생활민원 불편사항과 해결내용을 꼼꼼하게 담아냈고, 시의 성과 정부·지자체의 역할, 공유경제가 무엇인지를 직·간접적으로 잘 보여주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캠핑카·카라반 주차 ‘몸살’...전용 주차장 조성”은 주5일 근무와 주 52시간 근무 정책으로 캠핑 인구가 늘면서 빚어진 주민 불편 사안을 해당 지자체는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자세히 취재하였다.

대전광역시 동구의 15년 동안 묵혔던 민원 “‘입주 가능할까’ 막막했던 조합...권익위 조정으로 민원해결”은 재건축 아파트 입주 예정일을 앞두고 아파트 앞 도로 공사로 인해 입주가 미뤄진 사연을 소개하면서 권익위 조정으로 조합원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꼼꼼하게 설명하였다.

【구성 및 내용】

■ 알박기에 불법주차까지 갈등

레저 인구의 증가로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캠핑카, 카라반은 일반 승용차보다 덩치가 커 아파트를 비롯한 일반 주차장에 주차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캠핑족 증가 수치를 그래프로 비교해서 연도별로 그 증가추이를 확실하게 강조함으로써 여러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부각시키면서 시작해서 좀 더 집중력을 높였다. 결국 불법 주정차로 이어져 새로운 주차 문제로 대두된 현실을 전용 주차장을 확보해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세수도 늘린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례를 소개했다. 외곽지역의 한적한 주차장을 캠핑카와 카라반을 위한 전용 주차장으로 전환하면서 차 소유주들의 주차 문제도 해결하고 인근 주민들의 불만도 해결하고 남동구청의 수익도 보장하는 1석 3조의 좋은 아이디어여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한 정보였다. 다른 주차장과 다른 부분도 확실하게 소개가 잘 되었고 말미에는 한 달 사용료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서 차 소유주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을 것 같다. 특히, 운영수익이 100배나 늘었다는 점에서 다른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용할만한 참신한 아이템 이었다.

■ 아파트 앞 도로공사비 부담은

대전 동구 재건축 아파트 앞 도로를 두고 공사비 부담에 관한 조합과 대전 동구의 갈등을 다루고 이를 해결한 국민권익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확장하기로 한 도로공사비에 관한 민원으로 당초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재건축조합에서 전부 부담하기로 한 확장 공사비를 국민권익위의 주선으로 조합측과 지자체간에 분담하기로 해 민원을 해결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의 개입을 소개하면서 현장조정회의에서 조정된 내용이 소개가 되었는데, 다소 복잡하긴 했지만 자막으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이해를 도왔고 합의된 내용 역시 구체적인 부분까지 설명해주어 이해하는데 별 무리가 없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7. 12.	시청률	0.011

【총 평】

‘경제회복과 미래대비! 3차 추경’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고강도 노력과 지난 7월 3일 국회를 겨우 통과한 3차 추경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즉, 3차 추경이 집중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일 예정인지, 내수 시장이나 기업에 어떤 마중물이 되는지를 4개의 큰 카테고리 별로 나눠 자세하게 설명해줌으로써 3차 추경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세간의 오해를 풀어주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정부의 경제 정책이 무엇인지, 총 35조 1000억 원이라는 3차 추경을 왜 하는지, 3차 추경 예산 사용의 집중과 선택 분야는 어디인지, 3차 추경 설계는 취약계층과 구직활동 실업자 지원, 한국판 뉴딜 설계에 접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왜 집중됐는지, 왜 특약 처방을 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정책 설명 효과를 낳았고, 시청자들의 궁금증과 의구심을 차근차근 풀어주었다.

【구성 및 내용】

사상 처음 한 해 세차례나 편성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의 집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1, 2차 추경안을 짧게 정리하고 3차 추경안 발의와 확정까지 험난했던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여 이해를 도왔고 이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국회 원구성을 통해 추경안이 통과가 되었지만 그 시급함과 중차대함을 강조해서 3차 추경안의 정당성에 공감하게 했다. 특히, 고용유지 직접 일자리 등 고용안전망 강화, 주력 산업과 기업 등에 긴급 유동성 공급, 경기 보강을 위한 소비 진작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의 한 축 ‘디지털 뉴딜’이라는 4개 분야로 나눠 살펴보았다.

총 35조 1천억 원 규모로 설계된 “경제회복과 미래대비! 3차 추경”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상세히 소개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나 수입이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고용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자영업자나 특수직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자리 창출, 주력산업 운영자금 지원, 소비진작 프로젝트, 디지털 뉴딜 등이 그것이다. 특히 현장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소개해 추경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했다.

소상공인과 개인 일자리 문제를 다루면서 긴급고용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고 회사채 문제를 언급하면서 기업의 양극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SPV 설립을 제시했는데 내용이 어렵기는 했지만 필요성이 확실히 느껴졌다. 지난 긴급재난지원금부터 3차 추경안에 포함될 소비쿠폰과 소비회복지원 3종 세트와 가전제품 환급정책, 영화쿠폰 등 꽤 많은 정보가 소개되어 유익했다.

특히,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도 현재의 경제 전시상황을 강조하고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될 것’이라는 인용구를 통해 3차 추경안의 의의를 좀 더 강조했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7. 14.	시청률	0.000

【총 평】

담양의 죽공예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뉴스를 시작으로 청년들의 자활의지 등 긍정적 소재를 연이어 다룬 기획이 돋보였고, 장마철 무더위, 피서철, 코로나19를 타개할 생활정보 제공도 시청자 만족도를 높인 기획이었다. 특히, 담양 대나무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어떻게 등재될 수 있었는지를 자연친화적인 농법을 중심으로 잘 풀어냈고, 사회적 기업 '새날에 오면'이 가출여성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을 소개한 아이템은 '정서적 자립'의 중요성과 '믿음이 믿음을 낳는다'라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했다

【구성 및 내용】

■ 담양 대나무 농업 활기 기대

대나무가 자라기 좋은 담양 지역의 기후 특성상 따로 비료 등을 주지 않아도 잘 자란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담양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수익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이후 플라스틱이 나오면서 해당 산업이 축소되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친환경 제품이 인기를 얻으며 활기를 되찾고 있다. 한편 담양대나무밭 농업은 2014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4호로 지정된바 있으며 세계농업유산 지정이 추진되고 2년 만에 결실을 보았다.

■ 목함지뢰 하재헌 중사, 조정선수로 올림픽 금메달 도전

2015년 북한에서 매설한 목함지뢰로 인해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가 수도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하며 만난 조정감독과 함께 조정에 입문하여 훈련 및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작년 아시아선수권에서 1등, 장애인전국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향후 목표는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 가출 여성청소년 자립 돕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새날에 오면'이라는 사회적 기업어 가출여성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집을 나와 거리를 방황하는 가출청소년들의 홀로서기를 돕는 것. 여성청소년들은 카페에서 인턴십 기회를 가지기도 하며 자기를 믿어주는 어른들로부터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 사서추천도서와 함께 더위, 코로나19 이기세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변화된 세상을 고찰한 <언컨택트>, 가상의 도시에서 도서관이 문을 닫으며 떠나야 하는 책들과 사서의 이야기를 다룬 <도서관을 떠나는 책들을 위하여> 등 인문예술, 자연과학, 사회과학, 국외분야의 도서들을 추천해 주었다.

■ 2020 특별여행주간

정부는 휴가인파 분산과 소규모 안전여행 문화의 확산을 위해 7월 1일부터 19일까지 2020 특별여행주간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특특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0. 7. 14.	시청률	0.002

【총 평】

‘경제&이슈’는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 집행에 대한 내용으로 “경제 살리기 총력, 3차 추경 신속집행 기대효과”를 살펴보았고, ‘S&News’는 “# 내 계좌가 대포통장? # 여름철 ‘벼락 조심’ # 스포츠 폭력 언제까지?” 등 이슈와 정책을 쉽고 다양하게 풀어냈다. 오늘의 주요 경제이슈 “경제 살리기 총력, 3차 추경 신속집행 기대효과”는 1차·2차 추경안과 다른 3차 추경안 특징, 소상공인이나 기업이 버틸 수 있는 긴급 지원과 한국판 디지털 뉴딜정책인 고용 안정화를 위해 집중 투자하는 3차 추경액 35조 1천억원이 집행된 배경과 의미, 사용 부문과 예상되는 효과,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반론 등을 점검하였다

【구성 및 내용】

경제 살리기 총력, 3차 추경 신속 집행 기대효과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위주로 추경안의 의미와 배경, 다른 국가와의 비교부터 시작해서 말미에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그 해소 방안까지 폭넓게 살펴보았다. S&News는 신종 대포통장 피해와 낙뢰 주의보, 스포츠계 폭행 사건에 대해 다루었다.

3차 추경의 의미와 배경부터 살피면서 시작했는데 추경의 총 규모와 실제 지출액을 언급하며 현실적인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해외의 사례를 함께 살펴 보면서 3차 추경안의 규모를 언급한 것이 설득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추경의 역사를 살펴본 점도 흥미로웠다. 고용 안정화 대책에서는 한국판 뉴딜 사업과 기업 지원 자금,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고용안정 편성 규모와 질적인 평가에 대해서도 다루면서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솔직하게 평가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는 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산업 육성, 디지털, 포용 안전망구축, SOC 디지털화 등에 대해 설명했고 그린 뉴딜은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녹색산업혁신 생태계 조성,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소개했다. 고용안전망 강화에서는 전 국민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마무리부분에서는 재정 건전성에 다루었는데, 국가 재정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OECD국과 구조적 재정수지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재정 수준이 비교적 건전한 편이며 소극적인 재정이라고 평가했다.

<S&News>에서는 신종 대포통장 피해에 관해 다루었는데 신종 사기 수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 경각심을 준 점이 좋았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이체되어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처리하는 법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 많은 정보가 되었다. 이와 함께 여름철 벼락 주의보와 스포츠계 폭행 사건에 대해 다루었다.

프로그램	KTV 대한뉴스		
방송일자	2020. 7. 16.	시청률	0.010

【총 평】

KTV 대한뉴스는 '21대 국회 개원연설...“협치 시대 열어야”', '국외유입 47명...이라크 귀국 근로자 집단 확진', '그린뉴딜 청사진 발표...“저탄소 녹색사회로 전환”'를 시작으로 19개 부처 뉴스, 뉴스링크, 유용화의 오늘의 눈, 알기 쉬운 우리말 코너로 구성했다.

국회 개원연설을 톱뉴스로 시작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 코로나19 상황 등에 집중해서 다루었다. 뉴스링크는 초복, 의약분업 20년,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에 관해 다루었다. 유용화의 오늘의 눈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찬반의 의견과 영국의 사례를 빗대어 다루었으며, 오늘의 브리핑은 환경부 산업부의 저탄소 녹색사회에 관한 공동브리핑을 준비했다. 알기 쉬운 우리말은 그린 테일을 '친환경 유통'으로 바꾸어 설명했다.

【구성 및 내용】

국회개원연설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주축으로 하여 전체적인 뉴스를 구성했으며, 한국판 뉴딜정책에 많은 비중을 편성했으며, 특히, 그린 뉴딜 정책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나온 내용을 보도했는데 협치의 시대를 내세운 이번 연설의 취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어 톱뉴스로 선보일만 했고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와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깔끔하게 정리를 잘했다. 이번 연설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관해 보도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취지에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일자리 창출, 부동산 투기 억제 문제도 함께 다루면서 야당이나 국회에 대한 당부까지 폭넓게 다루었다. 또, 개원 연설을 한 문재인 대통령은 각 당을 상징하는 4가지 색으로 꾸며진 넥타이를 매고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연설에 박수로 화답했다.

또, 코로나19관련 보도는 국외유입 47명이라는 사실과 함께 국외 근로자들의 집단 확진에 초점을 맞추어 전했는데 근로자들의 경유지를 그림으로 표기해서 이해를 도와주었다. 이와 함께 단신으로 950명의 코로나19 완치자들이 혈장 공여에 참여해 57명에 렘데시비르를 투약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한국판 뉴딜 중에서도 그린뉴딜정책의 실질적인 계획들을 다루었는데, 탄소중립 사회 지향,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소외계층 보호, 신규일자리 마련,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나름대로 큰 줄기를 잘 소개했고 환경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의 브리핑을 교차시켜 정부의 의지를 더욱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친환경화 전기 수소차 확대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언급되었고, 친환경 학교와 스마트 생태공장 등이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뉴스링크>에서는 초복을 맞아 초복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의약분업 20주년을 맞아 그 성과와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의 의미를 살펴보고 <유용화의 오늘의 눈>은 그린벨트 해제 논란과 관련, 영국의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장단점을 서로 비교했다.

프로그램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방송일자	2020. 7. 16.	시청률	0.065

【총 평】

‘빗길 운전, 아차하면 대형사고’는 장마철 7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빗길 사고의 원인과 대책 등을 살펴본 ‘시의성’있는 기획이 돋보였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7만6천여 건에 사망자 1,712명 부상자 11만7천 여명이 발생되고 빗길사고의 발생시기는 7월이 14%로 가장 높았다.

실험취재가 소구력을 높였는데, 빗길운전에서 마모된 타이어가 왜 위험한지, 제동거리와 코너링 실험을 직접 해보여 임팩트를 살린 구성이 시청자의 몰입감을 높였다. 또, 사고당시 리얼한 영상물과 사고 운전자의 생생한 체험담 인터뷰로 메시지 전달력을 제고했다. 빗길 사고의 주요 원인이 구체적으로 분석되고 예방법이 솔루션으로 제시돼 캠페인 효과가 기대된다. 포트홀 점검과 복구 등 예방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정보 제공으로 유익했다. 또, 빗길 사고 예방대책에 나선 지자체를 소개해 정책알림이 역할과 함께 벤치마킹 확산 효과가 기대된다.

【구성 및 내용】

‘빗길운전 아차하면 대형사고’는 언제든 돌발사항이 일어날 수 있는 빗길운전에 대한 사고 사례, 유발원인, 예방 방법 등을 다뤘다. 장마와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시기에 빗길 운전사고를 주제로 정한 것은 시의성 있었고, 다양한 사고 사례 그리고 타이어 마모와 ‘포트홀’이 일으키는 사고의 위험성 등 거의 모든 정보를 담아냈고 빗길 운전의 특수성을 다양한 실험 영상을 통해서 전달했는데 정보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었던 내용 구성이었다.

타이어 마모 정도에 따른 제동거리의 차이 그리고 빗길 코너링의 위험성 등을 실험적 영상을 통해 보여줬는데 경각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 타이어는 주행을 많이 하지 않아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화현상이 일어나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유용한 정보였다.

빗길 사고의 주요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는데, 마모된 타이어, 공기압 문제, 빗길 과속 운전, 와이퍼 불량, 포트홀 방치, 앞차와 안전거리 미확보, 장마철 안전불감증 등이 빗길사고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또, 빗길사고 예방법이 솔루션으로 마모된 타이어 교체 등 차량점검 강화, 빗길 감속운전, 앞차와 거리두기, 포트홀 점검과 복구 등 예방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해 유익했다.

‘포트홀’이 타이어 파열을 일으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상황에선 크기가 커져 더욱 더 위험을 키운다는 설명은 운전자가 평소 지나치기 쉬운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포트홀 방지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는 사례(의정부시)와 즉시 출동해 복구공사에 나서는 대전시건설관리본부의 24시간 기동대 역할을 소개했다. 특히 포트홀 신고처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전화번호와 홈페이지를 안내해 길라잡이 역할을 했다.